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페루 기독교학교

성경적 상담 모형 연구

**A Study on a Biblical Counseling Model for Christian Schools in
Peru
Based on a Biblical Worldview**

박정화

이벤젤 크리스천 대학교

Evangel christian University of America Asia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페루 기독교학교 성경적 상담 모형 연구 (요약본)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페루 기독교학교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상담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의존 문화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는 선교지 교육 사역의 경험 속에서, 상담이 단순한 보조적 지원 기능을 넘어 학교 공동체의 핵심 구조로 자리잡고 있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특히 학교 상담사가 학생 지도의 문제를 넘어서 교사의 심리 평가, 학부모 교육, 학교 규범 형성, 심지어 가정 문제 개입까지 담당하며 교육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페루 사회 전반에 형성된 상담에 대한 높은 신뢰와 제도적 강화의 결과이며, 교육부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담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까지도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학교 내 상담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의존적 태도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담 중심 구조는 기독교학교의 교육 목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신학적 긴장을 야기한다. 학교교육의 전반에 걸쳐 상담의 영향력이 커진만큼, 학교 상담이 어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느냐는 학교 공동체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독교학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기초하여 학생을 양육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현재의 페루 학교의 상담은 상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토대는 본질적으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인본주의에 기반한 일반 심리상담은 인간의 문제를 주로 정서적 불균형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며, 해결의 목표 역시 자기 수용이나 심리적 조절에 두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독교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심리적 안정 상태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제자로 세우는 곳이다. 따라서 인간 중심적 상담 접근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성경적 인간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도하지 못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상담사의 개입이 점점 목회적 돌봄과 동일시되거나 그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학교 상담은 과연 어떤 가치와 방향성을 따라가야 하는가? 심리적 문제의 해소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가? 나아가,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변화의 여정'을 실현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본 연구는 페루 기독교학교 현장에서 관찰되는 상담에 대한 높은 신뢰와 의존 문화 속에서, 일반 심리상담 중심의 학교 상담 체계가 기독교학교의 교육 목적과 정체성에 어떠한 긴장을 초래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상담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 심리상담이 기독교 학교의 교육적 지향점과 충돌하는 지점을 분석하고, 학생의 내면 변화와 신앙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경적 상담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교육 체계 내에서 상담이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공동체가 연계된 종합적 학교 상담 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B.R.I.D.G.E.' 성경상담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학교 상담의 통합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2. 연구 질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심 질문을 설정하였다. "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상담 모형은 상담 의존도가 높은 선교지 기독교학교에서 학생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제자로 변화시키는가? "

이 중심 질문은 다음과 같은 탐색적 질문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일반 심리상담은 기독교학교 교육에서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가?

둘째, 상담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뢰와 의존 구조는 학교 공동체와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기독교학교 상담이 성경적 가치에 입각하여 재구성되어야 하는 신학적 · 교육적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BRIDGE 성경상담 모형은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을 상담 과정 속에 통합하고 구조화하는가?

다섯째, 이 모형이 적용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가치관, 정체성, 행동 변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는가?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조

본 연구는 기독교학교 상담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재구성될 수 있음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양적 분석을 병행한 혼합 연구 방법(Mixed methods design with qualitative dominance)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다.

첫째, 이론적 문헌 고찰이다. 기독교 학교의 본질과 성경적 상담, 성경적 세계관, 학교상담 이론과 실제에서의 가치 충돌과 이원론의 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현장 사례기반 질적 분석이다. 페루 상담에 대한 일반 이해와 페루 학교 상담의 법적, 사회적 근거를 기반으로 페루의 한 기독교학교의 실제 상담 운영 실태를 참여 관찰하고, 학부모 및 교사, 학생의 상담 인식을 설문을 통하여 수집, 분석하여 기존 상담의 이론 기반 및 실천 구조를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학교 상담실의 상담과 기독교 교육가치간 충돌 사례 분석이 포함되었다.

셋째, 상담모형 제안이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성경적 상담 모형으로서 BRIDGE 모델을 제시하고, 학교 전체 교육 구조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상담 종합모형을 이론적으로 구조화하였다.

넷째, 사례적용 및 효과 검토 : 연구자가 제안하는 B.R.I.G.E 성경적 상담모형을 기반으로 구성된 집단상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전후 변화를 사전-사후 리커트 척도 평가지를 통해 정량적으로 변화 수준을 확인하였다.

4. 기독교학교의 성경적 학교 상담 이해

기독교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학생을 양육하는 신앙 공동체이다. 그 목적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삶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특정 세계관에 기초한다. 따라서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은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독교학교에서의 상담은 교육과 분리된 독립적 기능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적 사역이다. 상담은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돕는 교육적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학교 상담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상담은 학생을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존귀한 존재로 이해한다. 둘째, 학생의 문제를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상태와 관계 속에서 해석한다. 셋째, 상담의 목표는 학생의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적 적응을 넘어 학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도록 돕는 데 있다.

상담은 단순한 문제 해결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를 포함하는 세계관적 활동이다. 상담은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과 세계에 대한 특정한 해석의 틀을 반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접근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독교학교에서 일반 상담이 여과없이 적용될 경우 상담은 그 학교의 교육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갈 것이며, 성경적 가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현대 상담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학교상담의 성경적 세계관 통합은 상담에 내재된 세계관, 즉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따라야 할 진리의 절대 기준, 인간 이해의 기준, 문제 정의의 기준, 해결 기준(상담의 목표와 방법), 목적 기준을 성경의 렌즈를 통해 검토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적 기준의 변화를 추구하는 의도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학교 상담은 문제에 반응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치료적 상담 뿐만 아니라 발달 영역 과제로서 발달적 상담, 그리고 예방적 상담, 기독교학교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가치 지원 체제 속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무엇을 · 왜 ·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본 프레임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 세속주의나 무신론에 기초한 인본주의 등 우리가 사는 사회를 소리없이 지배하고 있는 비성경적 신념체계들을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검증으로 재구성해 해야 한다.

창조(Creation)- 타락(Fall) - 구속(Redemption) - 회복(Restoration)이라는 성경적 구조 속에서 인간 경험을 해석하는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확장하여 학교 상담 과정에 적용 가능한 세계관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5.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BRIDGE 성경상담 모델

본 연구는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전환하는 6 단계 성경상담 모형 'B.R.I.D.G.E' 모델을 제안한다. 성경적 상담 접근이 성경을 활용하거나 영적 요소를 추가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 모델은 상담의 출발점부터 과정, 목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성경적 틀 안에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모델은 BRIDGE 라는 영문 이니셜을 통하여 '왜곡된 자아와 문제 인식'을 성경적 삶으로 연결하는 회복의 다리'를 의미하는 모델명이다. 하나님의 창조 – 인간의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되, 성경적 세계관에 의한 구조화를 통해 상담 흐름을 복음 안에서 재구성하고, 문제 중심의 상담을 성경 중심의 회복여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체계화 한 것이다.

이 모델은 고통당하는 인간의 현재 경험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 회복과 구속,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실제로 나아가는 상담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 과정은 행동 수정이 아닌 존재와 정체성의 변화를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학생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하고 반응하도록 이끈다.

상담의 각 단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B- Brokenness (깨어짐 인식): 내담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적, 영적, 심리적 고통을 인식하고 명료화하는 단계.

- R- Root (내면의 동기 분석) : 내담자가 경험하는 감정적 고통의 근본 원인(예: 트라우마, 잘못된 믿음)을 탐색하는 단계.

- I- Inversion (가치 전도 인식):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와 감정,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인식하는 단계.

- D- Divine Truth (말씀을 통한 진리 재해석): 내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발견하는 단계.

- G- Grace-based Identity (복음에 기초한 정체성 회복): 내담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복음에 의한 회복을 경험하는 단계.

- E- Embodiment (사명적 삶으로의 전환): 내담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단계.

B.R.I.D.G.E. 상담모델



이 모델은 기독교학교 상담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두었다. 기독교 학교에서 상담은 교육과 분리된 기능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과정이므로 B.R.I.D.G.E. 상담 모델은 상담과 교육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첫째, 상담을 심리적 개입에서 신앙 형성의 과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는 상담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을 제자로 형성하는 교육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둘째, 기독교학교 교육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상담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할 때, 교육과 상담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셋째,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델의 이론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 활동으로 구현되는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BRIDGE 모델의 완성은 학교 상담실의 상담 도구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를 형성하는 “성경적 상담- 교육 통합 시스템”으로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기독교학교에서의 상담이 상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심리 개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학교 상담은 일반 치료상담과 달리 특별 문제를 가진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예방적이며, 발달적인 성격을 가지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한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 상담은 단순히 상담실이라는 특별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서비스가 아니라 학교의 전 교육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성경적 학교 상담 종합모형>

이 상담 모델을 상담실에서만 적용할 경우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상담 시간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교실이나 가정, 또래 관계에서는 다른 가치가 작동할 수 있어 상담과 교육이 분리되는 ‘이원론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델의 적용은 본질적으로 학교 공동체 전체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 상담실에서는 개인상담 혹은 위기 개입을 다루면서, 교육과정에서는 예방 및 영성 형성 차원으로, 교실 활동에서는 교사의 일상적 개입과 상담적 교육 실현으로,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는 규범과 또래 관계, 학교 문화 형성 및 체제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확장되어 학교의 성경적 전인교육과 신앙 공동체 형성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5. 프로그램 적용 (성경적 미술치료 집단 상담) 및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앞서 제안된 B.R.I.D.G.E. 성경상담 모델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며, 학생의 내면과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술치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독교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상담을 교과 외 활동이 아닌 교육과정의 일부로 위치시키고, 성경의 가르침과 미술활동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복음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 미술상담 수업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총 4 회기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마다 B.R.I.D.G.E. 모형의 '진단(B - Brokenness) - 탐색(R - Root) - 확인(I - Inversion) - 접촉(D-Divine truth) - 회복(G - Grace-based Identity) - 실천적 삶(E - Embodiment)'의 재단계에서 성경적 통합과정을 거쳐 그 핵심을 반영하였다. 연구자는 각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경적 상담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신앙적 자아정체감과 성경적 삶의 방향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복음에 의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미술상담 수업은 중학생들의 정서 표현 능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둘째, 이러한 수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각 및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집단상담 수업에서 성경 기반의 질문과 묵상은 이원론적 가치 충돌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삶과 신앙의 통합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가?

연구 대상은 페루의 P 지역에 위치한 H 기독교학교 중학교 1학년 학생 47명으로, A와 B, 두 개 학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션 스쿨로서, 학생들의 종교적 배경이 다양하며 모든 학생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특정 신앙 수준을 전제로 하기보다,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되 학생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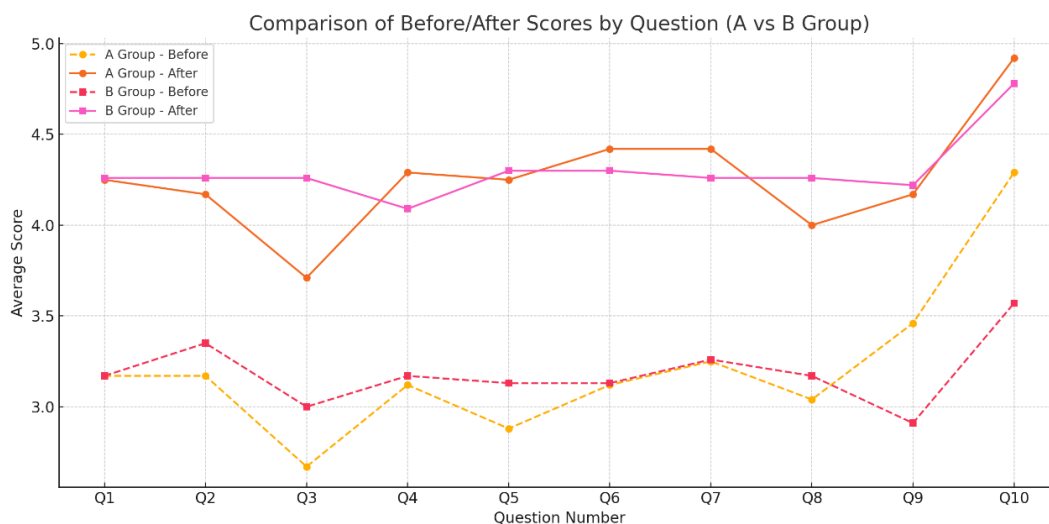
4 회기의 프로그램은 다음의 주제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었으며, 각 회기는 미술 치료프로그램과 함께 구성되었다.

- 1 회기 : 자기 인식과 긍정적 자아개념 (창 1: 26-28, 시 139 :14),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나" (자신의 이미지 사물로 표현하여 그리기)
- 2 회기 : 감정 인식 및 갈등 탐색(시 50: 15, 시 24: 18, 히 4:15). "화산이 폭발했어요"(감정의 화산 그리기)
- 3 회기 :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결단 (단 1:8-16, 고전 6:12), "말씀 속의 한 장면"(4 인 1 조 나누어 그리기)
- 4 회기 : 자기 성찰 및 공동체 인식 (요 1:12, 벧전 2:9), "공동체 안의 나"(협동화 그리기)

5.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성경적 집단 상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상담이 기독교 학교 학생들의 신앙적 자아 정체성, 감정 표현력, 말씀 수용 태도, 공동체 인식 및 신앙 실천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두 집단 그룹은 ① 신앙적 정체감 ② 자기 인식 ③ 정서 표현 ④ 감정·신앙 통합 ⑤ 하나님 동행 인식 ⑥ 말씀 수용 ⑦ 신앙적 결단 ⑧ 공동체 정체성 ⑨ 공동체 역할 인식 ⑩ 신앙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리커트 척도(1~5 점)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특히 말씀에 기반한 감정 다루기와 복음 중심의 정체성 형성이 두드러진 효과로 확인되었다.



두 그룹 모두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성장을 경험하였지만, B 그룹이 전체적으로 약간 더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특히 공동체 의식, 감정표현, 말씀 체험 영역에서 두드러진 향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B 그룹의 학생들 가운데 리더십을 가진

아이들이 많고, 친구 그룹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사전 학생 특성 조사에서부터 학생들의 대인관계나 자기개념 영역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것에서도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A 그룹은 프로그램 시작 전 자기표현, 정서적 신뢰, 말씀 경험에 대한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였고, 실제 집단 상담 수업에서도 두 그룹 간 상담 이해도나 수업 주제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수업 분위기 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A 그룹의 학생들에게서 보다 의미있는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개입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영역에서 두 그룹 모두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두 그룹 사이의 전체 평균 변화 차이는 0.08 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두 그룹 모두 효과적인 상담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프로그램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의미있게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는 페루 기독교학교 상담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상담의 필요성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종합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실제 상황은 복합적인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페루에는 성경적 상담을 전공한 기독교 상담 전문인이 전무하며, 현재 대부분의 학교 상담사들은 인본주의 심리학 이론에 기반하여 일반대학에서 양성된 인력이다. 그 결과, 기독교학교에서 상담은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상담이 학생들의 정체성, 가치관, 삶의 태도,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 본질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학교 상담이 상담실에만 집중된 구조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학교 상담은 본질상 학교 전체의 교육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과정, 반응적 서비스, 개별 계획, 공동체 체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구조적 특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담은 여전히 '전문가의 독립적 개입'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두 가지 핵심 제안을 담아냈다. 첫째, 기독교학교 상담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한 상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B.R.I.D.G.E' 성경상담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학생의 삶과 내면, 정체성과 신앙적 반응을 함께 다루는 성경적 접근을 체계화한 것이다. 둘째, 상담이 단지 상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 교육구조 안에서 교사, 학부모, 학교 내외 기독교 공동체와 연계된 종합적 상담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상담 종합모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적 성경적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 시도로서, 성경적 집단상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 안에 통합한 사례 연구 형태로 적용하였고, 평가 결과는 성경적 미술치료가 학생들의 신앙적 성장과 내면 회복에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적 상담이 단순한 이론적 대안이 아니라,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천 가능하며, 기독교학교의 교육 본질을 보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속적 발전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연령별(유치원, 초등, 중고등)로 특화된 성경적 상담 실행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BRIDGE 모형의 기초 위에, 각 발달 단계에 맞춘 상담 주제와 적용 방식, 교사 지도안, 활동 워크시트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기독교학교 내부에서 성경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현지 기독교 교사 혹은 상담 관련 인재들을 위한 온라인과 현장 기반의 성경적 상담 교육과정 또는 단기 성경적 상담 인증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상담 종합모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 조직 내에서의 협력 체제(예: 교사와 상담사의 협업 구조, 부모지원, 기독교 공동체 및 전문적 기독교 상담센터와의 연대 및 연계 운영 등)를 구체화하는 실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넷째, 상담 효과에 대한 장기적 추적 연구와 질적·양적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 단기적 사전-사후 평가를 넘어서, 성경적 상담을 경험한 학생들의 삶의 변화와 신앙 발달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성경적 상담 모형(BRIDGE)과 학교상담 종합모형은 기독교학교 상담의 새로운 틀을 제안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이 제안이 실제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델로 확장, 검증,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신학적·교육학적·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